러시아, 최악 전쟁범죄 '제노사이드' 저질렀나

〈대량학살〉

러시아군 휩쓸고 지나간 부차서 민간인 복장 시신 수백구 발견 서방, 조사 촉구·추가 제재 예고

러시아군이 물러간 우크라이나 북부 소도시 부차에서 '제노사이드'(Genocide)가 벌어졌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러시아의 전쟁 범죄 혐의가 짙어지고 있다.

러시아군이 휩쓸고 지나간 부차의 길거리에는 민간인 복장을 한 시신들이 무더기로 발견되고 있으며, 일부는 손이 뒤로 포박돼 '총살' 방식으로 살해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공위성 사진에는 부차의 대형 교회 앞마당에 집단 매장지가 포착됐고, 러시아군이 점령지에서 민간인을 무차별로 살해했다는 주장과 목격담도 속속 제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이 한 달여 만에 탈환한 지역에선 민간인으로 추정되는 시신 수가 점점 불어나고 있다.

제노사이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이 '대량학살 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협약'을 만들면서 개념이 정립됐다.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유대인 집단 학살)로 큰 충격을 받은 국제사회가 그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협약을 맺었다.

제노사이드는 어느 국민과 민족, 인종, 종교, 정치 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전멸시킬 의도로 행해지는 비인도적 폭력 범죄를 뜻한다.

집단을 살해하는 것은 물론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해를 입히거나 신체적 위해를 가하기 위해 생활조건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 의도적인 출생 억제, 집단의 어린이를 강제적으로 이주시키는 행위도 포함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군이 국가 전체를 제거하려 한다"면서 "이는 제노사이드다"라고 주장했다.

부차에서 벌어진 일이 제노사이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우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면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부차 상황을 맹비난하며 "가능한 모든 증거를 조사해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확인해 볼 것"이라고 말했지만 부차에서 제노사이드가 일어난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피했다.

제노사이드로 규정하는 순간 러시아에 대한 대응, 평화 협상, 전쟁 뒤 후속 처리에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CNN은 대표적인 집단학살 사례로 구소련 스탈린 정권이 자행한 우크라이나 대기근 사태 '홀로도모르' 등을 꼽았다. 소련은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농업집단화 정책에 반발하자 1932~1933년 이곳의 농사를 막아 600만~1000만명이 숨졌다.

나치 독일이 자행한 홀로코스트(1938~1945)도 대표적인 집단학살이다. 독일과 폴란드, 소련 등지에서 600만명의 유대인이 희생됐다.

캄보디아 크메르루주의 제노사이드(1975~1979)로 200만명이 숨졌고, 유고슬라비아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정권의 보스니아 학살(1992~1995년)로 10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수단 다르푸르 지역에선 종족간 내전으로 30만명이 학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4년 미국 의회는 다르푸르 상황을 제노사이드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노사이드에 대한 단죄는 범죄를 저지른 정권이 전복된 이후에야 가능했다.

현재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대량학살을 비롯해 인도주의적 범죄, 도발 범죄와 전쟁범죄 등을 심판한다. 서방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선 이미 심각한 민간인 피해를 초래한 마리우폴 산부인과 병원과 극장 폭격 등에 대해 ICC를 통한 처벌을 추진하고 있다.

ICC는 이 외에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각종 전쟁 범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단을 파견했으며, 목격자들의 신고를 받기 위한 온라인 포털을 개설한 상태다.

이런 전례를 고려하면 민간인이 대규모로 살해됐을 가능성이 매우 큰 부차 대량학살 의혹도 ICC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 북부 소도시 부차의 한 교회 앞마당에서 위성으로 촬영된 민간인 희생자 집단매장 터 모습. 미국 민간위성업체 맥사 테크놀로지스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찍어 3일 공개한 이 사진 윗부분에 길이 약 14m에 달하는 구덩이가 선명하게 보인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최다 300구의 민간인 시신이 포대에 든 채 이 안에 쌓여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제난 민심 폭발 스리랑카 비상사태 선언 이어 내각 사퇴

라자팍사 가족 통치에 비난 통금 조치에도 시위 이어져

최악의 경제난을 겪는 스리랑카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는 등 민심이 폭발하자 당국이 비상사태 선언에 이어 내각 총사퇴로 사태 수습에 나섰다.

4일(현지시간) 데일리미러 등 스리랑카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스리랑카 내각의 장관 26명 전원은 전날 밤 사임했다8.

디네시 구나와르데나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이 새 내각을 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이번 결정은 경제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 대해 논의한 후 내려졌다고 말했다.

스리랑카는 현재 1948년 독립 후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고 외신들은 지적한다.

야권 등은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이 이 같은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며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시민은 지난달 31일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몰려가 군경 차량에 불을 지르는 등 격렬하게 시위를 벌였다.

이에 고타바야 대통령은 지난 1일 밤 치안·공공질서 보호, 필수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며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어 2일 오후 6시부터 4일 오전 6시까지 전국적으로 통행 금지령도 발동했다.

그런데도 일부 야권 정치인과 시민 수천명은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이처럼 상황이 심상치 않자 당국이 '내각 사퇴' 카드로 민심 수습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고타바야 대통령은 새 내각에 야권 인사들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리랑카는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총리도 내정과 관련해 상당한 권한을 갖는 등 의원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체제를 운용 중이다.

이런 스리랑카 정계는 라자팍사 가문이 완전히 장악한 채 사실상 '가족 통치 체제'가 구축된 상태다.

전임 대통령 출신으로 총리를 맡은 마힌다 라자팍사는 고타바야 대통령의 형이다.

이들의 형인 차말은 관개부 장관직을 맡았고, 마힌다의 아들인 나말은 청년체육부 장관이었다.

작년 7월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바실은 고타바야의 동생이다.

라자팍사 가문은 2005~2015년에도 독재에 가까운 권위주의 통치를 주도했다. 당시에는 마힌다가 대통령을 맡았고 대통령이 겸임하는 국방부 장관 아래의 국방부 차관은 고타바야가 역임했다.

관광산업이 주력인 스리랑카 경제는 2019년 4월 '부활절 테러'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덮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정부는 민생을 살리겠다며 통화량을 늘리고, 수입 규제와 감세 정책을 펼쳤지만 물가는 급등했고 외화는 부족해지는 등 상황은 오히려 갈수록 악화했다. 이에 국가 부도 위기까지 몰려 있다.

식품, 의약품, 종이 등 필수품 수입 등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민생 경제는 뿌리째 붕괴하는 조짐을 보인다. 특히 최근 발전 연료가 부족해 하루 13시간씩 순환 단전이 이뤄지기도 했다. /연합뉴스

테슬라·폭스바겐 등 상하이 공장 조업 중단 지속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조업 중단 장기화로 중국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4일 신랑재정에 따르면 폭스바겐과 이치자동차가 합작 건립한 창춘 자동차 생산공장의 조업 중단이 애초 3일에서 오는 5일까지 연장됐다.

이 공장은 코로나19 감염자 급증에 따른 창춘시 도시 봉쇄 조치로 지난달 13일 조업을 중단했다.

상하이자동차와 합작한 폭스바겐 상하이 공장 역시 상하이시 봉쇄령에 따른 부품 조달 차질로 지난달 31일부터 부분 가동 중단에 들어갔다.

로이터는 이번 테슬라 상하이 공장 조업 중단도 최장기간 기록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중국 감염자 이틀째 1만3천명대…상하이에 의료인력 1만2천명 지원

쑤저우서 새로운 바이러스 확인

중국 상하이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며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자 중국 당국이 군 인력까지 투입해 지원에 나섰다.

4일 중국 해방군보에 따르면 군 당국은 전날 윈(云)-20 수송기를 동원해 상하이에 군 의료 인력 2000여명을 파견했다.

군 의료 인력은 육·해군 7개 부대 소속 군의관 등으로 구성됐으며, 감염자 치료와 핵산 검사에 투입될 예정이다.

또 상하이 인근 도시와 저장성 등에서도 의료 인력 1만여명을 파견해 핵산 검사와 임시 병원 건립 등을 지원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상하이에서는 지난 3일 신규 감염자가 9006명으로 처음으로 9000명대에 진입했다. 3일을 포함해 지난 열흘 간 발생한 누적 감염자 수도 4만명을 넘어섰다.

상하이를 동서로 나눠 순차 봉쇄를 진행 중인 상하이시 당국은 감염자 조기 파악을 위해 전 주민을 대상으로 신속 항원 검사(3일)와 핵산 검사(4일)를 진행하고 있다.

상하이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상하이 인근 지역에서는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돼 방역에 위협이 되고 있다.

중국 인터넷 매체인 펑파이는 상하이 인근 쑤저우에서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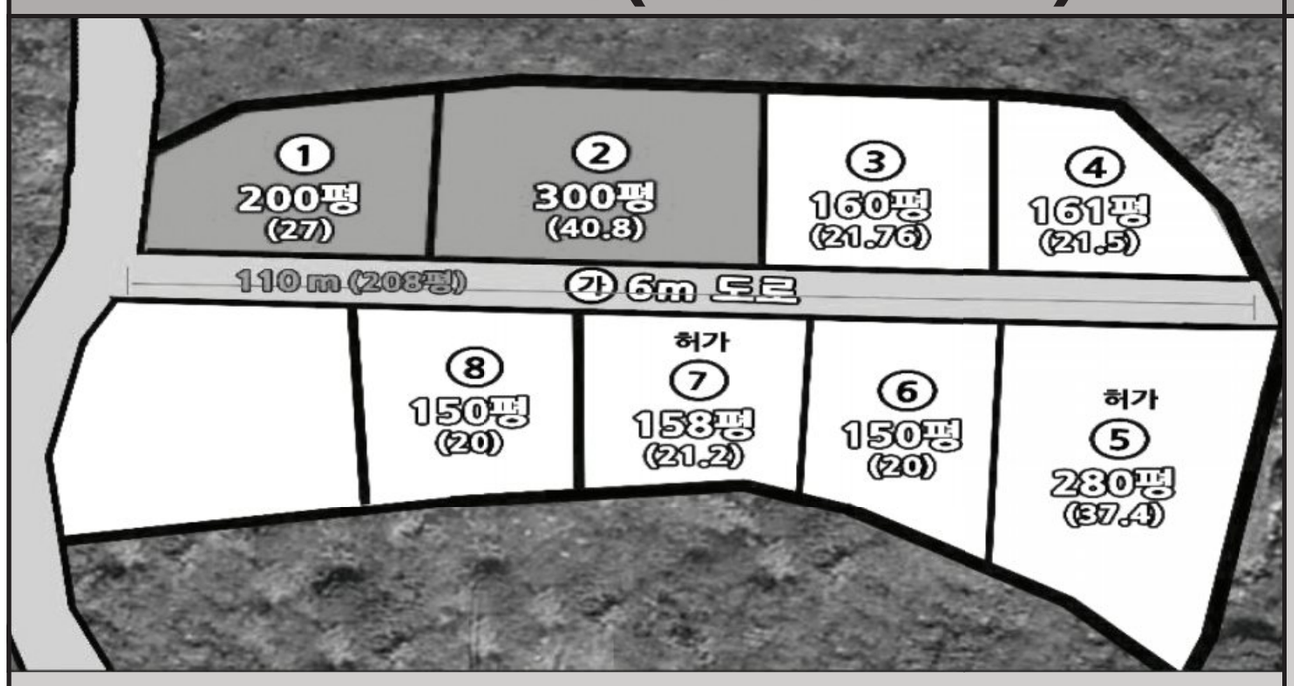
쑤저우시 코로나19합동통제본부는 이번에 확인된 바이러스의 유전자 서열은 국제인플루엔자정보공유기구(GISAID)에 보고되지 않은 바이러스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중국에서는 신규 감염자 1만3137명이 발생해 이틀 연속 1만3000명대를 기록했다.

수도인 베이징에서도 차오양구 왕징에서 5명의 신규 감염자가 나왔다.

왕징은 한국인 다수 거주 지역으로 감염자 5명은 한국 옷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옷가게 점원과 그의 동거인이라고 방역 당국은 전했다. /연합뉴스

장성 토지(매매 분양)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

상가매매(상무지구)

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
시세 -> 9억
급매가 -> 6억
(보 3천, 월 350만, 융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흥,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

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배우면서 수익가능)

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

광주	북구 신안동(다세대빌라)▶감정가 3억9천 -> 1억7천 (3/23)
	광산구 소촌동(농지)▶ 감정가 4억4천 -> 2억5천 (4/14)
	광산구 덕림동(임야)▶ 감정가 21억 -> 15억 (4/15)
	서구 화정동(주택)▶ 감정가 2억5천 -> 1억4천 (4/15)
	동구 지산동(임야)▶감정가 19억 -> 13억 (4/22)
	광산구 하남동(주택)▶감정가 7억8천 -> 5억5천 (4/22)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감정가 95억 -> 42억 (4/26)
전남	화순군 도곡면(임야)▶ 감정가 7천 -> 7천(3/31)
	담양군 창평면(주택)▶ 감정가 2억5천 -> 2억5천 (4/6)
	나주시 빛가람동(주차장)▶ 감정가 17억 -> 12억 (4/11)
	보성군 벌교읍(근린시설)▶ 감정가 130억 -> 38억 (4/11)
시외	경기도 수원시(근린주택)▶감정가 15억 -> 7억4천 (3/31)
	경북 경주시(다가구원룸)▶감정가 15억 -> 5억4천(4/5)

010-6670-9800